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98)(10/8/2022)

제 3 권 내적 위로

54 장 본성과 은혜는 정반대로 움직임, 1-5 절

잠언 6:16-19 - 16.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17.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18.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으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19.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마 16:25 -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막 10:44 -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고전 10:24 -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전 13:5 -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고전 6:20 -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 <그리스도> 아들이, 본성의 움직임과 은혜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주의해서 눈여겨보라. 왜냐하면, 이 둘은 서로 정반대로 아주 미묘하게 움직이는 까닭에, 그 마음에 빛을 받은 영적인 사람 외에는, 그 움직임의 차이를 거의 분간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모든 사람이 선을 추구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쓴다. 이렇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어쨌든 표면상으로는 선해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 것이다.

2. 본성은 교활하고 간교하여, 많은 사람들을 유인해서 올무에 걸리게 하고 속여서, 늘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관철시킨다. 반면에, 은혜는 사심 없이 진실하게 행하고, 조금이라도 악한 것은 멀리하며, 속임을 베풀지 않고,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3. 본성은 죽고자 하지 않고, 억압당하거나 지는 것을 싫어하며, 남의 밑에 있거나 자발적으로 복종하려고 하지 않는다. 반면에, 은혜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애쓰고, 육신의 정욕에 맞서며, 복종하고자 하고, 자기를 바라며,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고자 하지 않고, 가르침 받기를 좋아하며 누구를 지배하기를 원하지 않고, 도리어 늘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가고 존재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기꺼이 겸손하게 순복하고자 한다(벧전 2:13).

4. 본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애쓰고, 사람들로부터 모종의 이득을 얻어 낼 궁리만 한다. 반면에, 은혜는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하고 이익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

5. 본성은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공경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반면에, 은혜는 모든 존귀와 영광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린다.

말씀과 해설: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경을 중심으로 은혜의 사람과 육신적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적 특징을 잘 비교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육신적 본성의 사람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 나간다. 본성의 사람은 사도바울이 말한 “옛 사람”으로 말할 수 있고, 은혜의 사람은 “새 사람”(엡 4:22-23),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난 사람”으로 말할 수 있다(요 3:5, 8). 그렇다면, 본성의 사람과 은혜의 사람은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성경 말씀과 아퀴나스의 묵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1) 본성의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죄악대로 행동하지만, 은혜의 사람은 변화된 마음에서 나오는 변화된 행동이 나타난다. 성경은 죄악된 육신의 본성을 그대로 지닌 사람의 마음과 행동들을 정리한 내용을 여러 곳에서 소개한다. 잠언 6:16-19 - 16.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17.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18.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으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19.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 외에도 본성의 사람의 왜곡된 모습의 예는 수도 없이 많다. 그러나 은혜의 사람은 이와는 반대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3-44)고 하시면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 . .”(마 5:45)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 온갖 종류의 거짓, 미움, 나의 유익을 위한 속임과 공격, 보복, 그 외의 다양한 죄악을 일삼지 않고 그 반대로 행하며, 심지어 원수까지도 품고 용서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한 베드로와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성도들을 권면했다. **벧전 3:9 -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롬 12:17 -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 본성의 사람은 영적으로 자신을 죽이지 않지만, 은혜의 사람은 자신을 죽이고, 낮추고, 순종한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도의 핵심이다. **마 16:25 -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막 10:44 -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눅 14:11 -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죽이고 낮아짐에 모범을 보이셨다. **빌 2:8 - 사람의 모양으로 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3) 본성의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만, 은혜의 사람은 남의 유익을 구한다. 바울은 **고전 10:24**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권면했다. 그러면서, 참된 사랑의 특징 중의 하나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고전 13:5 -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성령의 은혜를 받은 새 사람은 사랑의 사람으로서 자기 이전에 남의 유익을 구한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서 나왔다.

4) 본성의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며 자기가 영광을 얻으려 하지만, 은혜의 사람은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린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다. **요 7:18 -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시작에서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마 6:9)라고 하셨고, 마지막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마 6:13)라고 하셨다. 주기도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 평생토록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다. **고전 6:20 -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죄악된 본성이 그대로 있는 옛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오늘을 산다. 하나님은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을 승리하게 하시고, 높이시며, 주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십자가에 나를 못박으며, 남의 유익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2. 창립 50 주년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숙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3.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박훈용 선교사님(캄보디아), 우석정 선교사님(베트남), 이기쁨 선교사님(인도네시아), 이드림 선교사님(카자흐스탄)의 가정과 사역에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고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